

##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 DTI 적용 3억 이상 아파트로 확대

&lt;총부채상환비율&gt;

9일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단기 수요 억제, 분양가 인하 및 공급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시장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을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으로 인한 소형주택 가격 상승 측면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선매수수요 측면,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감독, 분양가 20~30% 인하,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세무조사, 투기억제책 유지 등을 추진키로 하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기로에 해 향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정부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집값이 오르면서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 난개발 등 문제로 각종 건축규제가 이뤄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하다.

권 부총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처럼 필로티 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lt;연합뉴스&gt;

## 민간 아파트 표준건축비 적용 검토

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감독 강화=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예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최근 부동산가격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관리·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기존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민간 분양가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를 적용

권오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경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은 LTV와 DTI를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구분없이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다가구 등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민간규제도 검토=정부는 예상을 초과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는 "8·31대책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의 억제, 주택공급 확대 등 3가지 틀에서 만들어졌는데 시기의 빠르고 느림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세금은 더 안 건드린다”

## 허용석 세제실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9일 "부동산 추가대책에 세제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당시 만든 세법 중에는 내년에 가야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시행된지 1년차가 된 것도 있다"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부동산대책에서 세제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8·31대책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의 억제, 주택공급 확대 등 3가지 틀에서 만들어졌는데 시기의 빠르고 느림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경

1. 편리한 주식의 개발

2. 편리한 주식의 개발

3. 편리한 주식의 개발

4. 편리한 주식의 개발

5. 편리한 주식의 개발

6. 편리한 주식의 개발

7. 편리한 주식의 개발

8. 편리한 주식의 개발

9.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 편리한 주식의 개발

12. 편리한 주식의 개발

13. 편리한 주식의 개발

14. 편리한 주식의 개발

15. 편리한 주식의 개발

16. 편리한 주식의 개발

17. 편리한 주식의 개발

18. 편리한 주식의 개발

19. 편리한 주식의 개발

20. 편리한 주식의 개발

21. 편리한 주식의 개발

22. 편리한 주식의 개발

23. 편리한 주식의 개발

24. 편리한 주식의 개발

25. 편리한 주식의 개발

26. 편리한 주식의 개발

27. 편리한 주식의 개발

28. 편리한 주식의 개발

29. 편리한 주식의 개발

30. 편리한 주식의 개발

31. 편리한 주식의 개발

32. 편리한 주식의 개발

33. 편리한 주식의 개발

34. 편리한 주식의 개발

35. 편리한 주식의 개발

36. 편리한 주식의 개발

37. 편리한 주식의 개발

38. 편리한 주식의 개발

39. 편리한 주식의 개발

40. 편리한 주식의 개발

41. 편리한 주식의 개발

42. 편리한 주식의 개발

43. 편리한 주식의 개발

44. 편리한 주식의 개발

45. 편리한 주식의 개발

46. 편리한 주식의 개발

47. 편리한 주식의 개발

48. 편리한 주식의 개발

49. 편리한 주식의 개발

50. 편리한 주식의 개발

51. 편리한 주식의 개발

52. 편리한 주식의 개발

53. 편리한 주식의 개발

54. 편리한 주식의 개발

55. 편리한 주식의 개발

56. 편리한 주식의 개발

57. 편리한 주식의 개발

58. 편리한 주식의 개발

59. 편리한 주식의 개발

60. 편리한 주식의 개발

61. 편리한 주식의 개발

62. 편리한 주식의 개발

63. 편리한 주식의 개발

64. 편리한 주식의 개발

65. 편리한 주식의 개발

66. 편리한 주식의 개발

67. 편리한 주식의 개발

68. 편리한 주식의 개발

69. 편리한 주식의 개발

70. 편리한 주식의 개발

71. 편리한 주식의 개발

72. 편리한 주식의 개발

73. 편리한 주식의 개발

74. 편리한 주식의 개발

75. 편리한 주식의 개발

76. 편리한 주식의 개발

77. 편리한 주식의 개발

78. 편리한 주식의 개발

79. 편리한 주식의 개발

80. 편리한 주식의 개발

81. 편리한 주식의 개발

82. 편리한 주식의 개발

83. 편리한 주식의 개발

84. 편리한 주식의 개발

85. 편리한 주식의 개발

86. 편리한 주식의 개발

87. 편리한 주식의 개발

88. 편리한 주식의 개발

89. 편리한 주식의 개발

90. 편리한 주식의 개발

91. 편리한 주식의 개발

92. 편리한 주식의 개발

93. 편리한 주식의 개발

94. 편리한 주식의 개발

95. 편리한 주식의 개발

96. 편리한 주식의 개발

97. 편리한 주식의 개발

98. 편리한 주식의 개발

99.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0.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1.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2.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3.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4.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5.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6.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7.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8. 편리한 주식의 개발

109.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0.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1.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2.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3.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4.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5.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6.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7.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8. 편리한 주식의 개발

119. 편리한 주식의 개발

120. 편리한 주식의 개발

121. 편리한 주식의 개발

122. 편리한 주식의 개발

123.